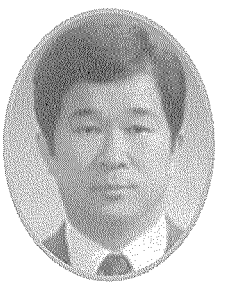
특집 / 2003년판 한국도서관기준의 의의와 특징

〈3〉 전문도서관

김 창 근*



서기 2000년 3월 한국도서관협회는 21세기 한국 도서관의 지표가 될 수 있는 새 도서관기준을 만들고자 도서관기준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각급 도서관에서 전문위원을 선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내가 전문도서관 분야의 전문위원으로 활동해야 한다는 뜻을 전달 받았다. 그러나 나는 나보다도 더 열성적으로 도서관계를 위해서 정렬을 쏟을 수 있는 분으로 위촉하시라고 사양했다. 그런데 도서관학과를 졸업한 이후, 우리나라 전문도서관 사서의 일원으로서 9년간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근무하였던 경력과 1984년 7월, 우리나라 최초의 과학영재 교육기관인 한국과학기술대학 사서과장으로 임용된 이후 2000년 8월, 한국과학기술원 과학도서관까지 소위 무늬만 대학이었던 전문도서관에서 근무했던 경력, 그리고 전문도서관협력단체인 과학기술정보관리협의회의 운영에 매사 깊숙이 관여했던 사람이었으며, 우리나라에는 적용할 기준이 없었던 '과학영재를 위한 도서관기준'에 대한 연구를 한 사람인 나에게 21세기 우리나라 도서관 발전의 지표가 될 새로운 "한국도서관기준"의 탄생을 위한 전문도서관 부문의 할당은 전혀 생소하거나 간과할 일은 아니라고 보았기 때문에 일단 "2003년판 한국도서관기준"이 완성될 때까지 이 역사에 동참하였다.

도서관기준의 중요성을 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준은 어디까지나 기준일 뿐"이라는 말을 한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우리가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이나 일본의 기준을 모방한 것"이라고 말한다. 정말로 "기준은 어디까지나 기준일 뿐"이며 외국 기준의 모방이었던가? 실제로 그랬다. "도서관기준이 이러이러하므로 시설은 최소한 00평 정도는 되어야 하며 예산은 전체 예산의 X% 이상, 인원은 X명 이상이어야 합니다."라고 하면 "우리 기관의 어느 부서도 기준에 맞는 곳은 없다. 또 기준을 충족시키려면 많

* 인하대학교 정석학술정보관 부관장, kimck@inha.ac.kr

은 예산이 소요되니 이 정도에서 양보하지 않으면 당신 부서의 존재가 위태로워지므로 이 정도로 만족하자."라고 말한다. "도서관의 경우에는 일본보다는 미국의 그것을 많이 모방했겠군."이라고도 말한다. 이러한 비아냥은 어디에서 연유된 것인가? 제시된 기준이 우리의 현실과 커다란 괴리가 있었거나, 전문도서관이 존재하는 모 기관의 견지에서는 수용하기 어려운 것이었을까? 이러한 현실 괴리와 수용 불가성의 근본을 파악해 보는 한편 작성되는 모든 기준은 수용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기본 고려사항으로 설정하고 초안 작성 작업은 시작되었다.

우리나라가 세계 12위의 경제 대국으로 발전하기까지 우리는 많은 분야에서 모방의 천재가 아니었던가? 우리 모두가 모든 것을 모방했었다. 가전에서도 모방했고, 자동차에서도 모방했으며 여러 분야에서 지금도 모방하고 있다. 특히 과학 기술 분야에서는 기초과학 기술이나 요소 기술의 연구는 등한시하면서 당장 돈이 되는 응용 기술 분야에만 투자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모방이 기술 개발의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지금까지의 우리 도서관기준도 그러한 모방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었다고 인정한다손 치더라도 이제는 우리의 기준을 가져야 한다. 정보 사회에서 정보를 다루는 부서를 일반 행정부서보다 천시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이러한 두 가지 명제를 놓고 나와 한두완 위원은 기준작성을 위한 기존 기준의 상세 분석과 새 기준의 틀을 짜기 위한 실제 작업에 들어갔다. 이 작업 과정에서 중점적으로 개선해야 할 항목을 선정하였으며 새 기준의 타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성 있는 자료를 가능한 한 여러 방면에서 폭 넓게 수집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초안 작성 과정을 거쳐서 마무리를 위한 검증 작업 과정으로 넘어 갔다. 즉, 대학도서관,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특수도서관 등 각 분야를 담당한 선생님들로부터 제3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시각을 이해하고 상호 평가와 입장 정리를 통하여, 수차에 걸친 개별 토론과 집단 토론을 통하여, 이 분야 최고의 권위자이신 손정표 교수님의 논리 정연한 최종 판단에 의하여 21세기 대한민국 도서관을 위한 도서관기준은 비로소 결실을 보게 되었다.

최종안이 완성되고 나서도 또 한편으로 우려되었던 것은 아무리 좋은, 현실성 풍부한 도서관기준을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적용해 주어야 할 기관에서 무시하면 어쩌나 하는 노파심이 앞섰다. 연구소와 연구중심의 대학에서 꼬박 25년간을 근무하면서 겪었던 소름 끼쳤던 과거 - 예산 절감이나 긴축 예산 편성이라는 말만 나오면 가장 먼저 그 대상이 되었던 것은 자료실(도서관)을 포함한 지원부서, 행정부서, 연구부서 순이었고 인력 감축 또한 그 순서대로이었다. - 를 떠 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

근래에 이르러 많은 대학도서관에서, 공공도서관에서 새 도서관 건물을 경쟁적으로 신축하고 있거나 디지털 라이브러리 시스템 구축에 열성적이다. 이러한 현상은 지식정보사회에서 정보의 보고인 도서관에 대한 투자 의지와 식견이 많이 달라지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종전과 같이 도서관 또는 자료실이 일반 행정부서보다 천시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확신해도 좋을 것 같다. 만약 앞으로도 기준(Standards)을 무시하거나 도외시하는 기관이 있다면 그 기관은 지식정보사회에서 급속히 도태될 수 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이 제정, 공포된 도서관기준은 명실상부 인정받는 기준으로서 제 역할을 다 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제 "2003년판 한국도서관기준"이 발행되었고 각급 도서관은 이 기준을 바탕으로 많은 발전이 있을 것이며 대한민국이 정보강국으로 우뚝 서기를 바라마지 않는다.